

# 신안군, 어업질서 확립 추진에 최선

### 무허가 실뱀장어어업 및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 집중 지도·단속...“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신안군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

하게 설치되어,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랑안강망(일명:캔버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은 물론 항행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9년도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어업 사전 차단 및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은폐, 변경, 제거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지도·단속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에는 64건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3,897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 함평군, 샤인머스켓 포도 영농교육 실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샤인머스켓 포도 영농교육이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샤인머스켓 재배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기침체 및 재배면적 급증 여파로 인한 샤인머스켓 소비 부진에 대응, 고품질·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용하 한국포도회 회장이 강사로 나서

포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비롯해 포도 품위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등을 교육했다. 박용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시름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샤인머스켓 포도를 선정, 사업비 8억 6천만원을 확보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개 농가에서 30ha 규모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다.

함평=김광준기자

## 영광군, 전락작물 직불제 2월 15일~3월 31일 접수

영광군은 식량 안보 향상을 위해 밀, 콩,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는 '전락작물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락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밭살을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이른다. 전락작물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 콩이나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겨울철 밀·조사료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락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2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락작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락작물 직불제에 힘입어 작물전락 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시, 야생 멧돼지 출몰 주의 당부...유해 야생동물포획단 운영

### 8일부터 5일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포 사용 포획

목포시는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 산 주변 경작자의 농작물 피해예방 조치 및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에서 정하는 종을 말하며,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이 대표적이다.

공개모집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은 5명으로 구성됐으며,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았다.

전라남도의 협조로 대한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경찰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고 안전한 포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포획 활동시 발생하는 총소리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포획활동 기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입암산 입산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멧돼지 출몰지역 경작자는 작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야간 통행을 자제할 것과, 만일 멧돼지를 만나면 뛰거나 소리지르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몸을 숨길 것을 강조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감 가공 기술공부방'

### 품평회 통한 다양한 감 가공품 선보여

영암군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감가공기술공부방”이 3일 금정면 농업인상담소 2층 회의실에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꾀감, 말랭이 외에도 딸기 품은꾀감, 꾀감속샤인포도, 꾀감월남쌈, 꾀감호두말이, 꾀감식빵, 대롱감식혜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매료시켰다.

품평회에 참여한 학습동아리 회원 정종두, 박연현씨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꾀감을 여러 방문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뿌듯

했다. 앞으로도 학습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다채로운 농식품을 연구하고, 생과를 이용한 다양한 농식품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농민을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관내 거주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암 농·축산물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당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